

제 5 장
남 면(南 面)



남면 느티나무

남면은 한말에 적성군에 속하였으며, 신암리(神巖里)·매곡리(梅谷里)·구암리(龜巖里)·사촌리(沙村里)·두곡리(杜谷里)·경신리(庚申里)·상수리(湘水里)·발운리(發雲里)·마산리(馬山里)·입암리(笠巖里)·신산리(莘山里)·황방리(篁芳里)·임간리(林澗里)·한산리(閑山里) 등 14개 동리를 관할하였다.¹⁾ 그러다가 1914년 3월 13일에 도령(道令) 제3호로 연천군에 편입되었다. 이때 매곡리·한산리·입암리·상수리·발운리 등 5개 리에서 각각 일부 지역을 분리시켜 양주군에 편입시켰다. 아울러 양주군 석적면 회춘리·이패하리·항동리·목은면 사패리 등 4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내어 남면에 편입시켰다. 그리고 신암리·매곡리·구암리·두곡리·경신리·상수리·입암리·신산리·황방리·한산리 등 10개 리로 개편하였다.²⁾ 당시 면사무소는 매곡리에 있었다.³⁾

1945년 11월 3일 미군정 포고령 제22호에 의하여 남면은 파주군에 편입되었다. 그런데 지리·교통 및 제반사항에 큰 불편을 느낀 면민의 요구로, 1946년 2월 5일 양주군에 편입되었다. 1980년 1월 10일 19개 행정리로 분리되었으며, 1981년 6월 13일 면 청사를 신산리 346번지에서 현 위치로 이전하였다. 1987년 9월 10일 20개 행정리로 분리되었다.

남면이란 명칭은 감악산 남쪽에 위치한 데서 유래하였다.

1. 신산리(莘山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남면 신암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였다. 그후 신산리는 신산 1리(안말·지청말), 신산 2리(안하동·광수원), 신산 3리(토교장) 등 3개 리로 구성되었다가, 1972년 8월 25일 신산 3리가 1리에 병합되었다. 1980년 4월 1일 신산리가 1·2·3·4·5리로 개편되었다.

신산리 지명유래는 두가지 설이 전하고 있다. ① 중국 은(殷)의 상신(相臣) 이윤(伊尹)이 낙향하면서 ‘耕於莘野’라는 말을 하였는데, 여기서 ‘莘’자를 따 와서 신산리라는 지명을 지었다. ② 앞산이 신처럼 생겼다고 하여 신미·신피·신산이라 하였으며, 또 지청말의 귀신바위와

1) 朝鮮總督府, 『舊韓國地方行政區域名稱一覽』, 1912, 94-95쪽.

2) 朝鮮總督府, 『新舊對照 朝鮮全道 府郡面里洞名稱一覽』, 1917, 111쪽.

3)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 「지도」, 1915 참조.



안산의 이름을 따서 ‘神山’이라 하였는데, 이것이 지금의 ‘華山’으로 바뀌었다.

● 광수원(廣水院)

남면 면사무소 북서쪽에 있는 마을. 이 고장은 하천이 넓었고, 고려 시대 당시 이곳에 원(院)이 있었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 이곳은 감악산의 남쪽이고 고려 이래 북쪽으로 가는 큰 길이 있던 지역이었다. 의주로 가는 유일한 통로이다.

● 아랫마을

언덕말 동쪽에 있는 마을. 아래쪽에 위치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 언덕말[岸下洞]

광수원 남동쪽에 있는 마을. 언덕 아래에 있다 하여 언덕아랫마을로 불리다가 언덕말로 되었다.

● 지청말

언덕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 정여립난(鄭汝立亂) 때, 평란 2등공신 이준(李準)의 제사를 그의 사당이 있는 이곳에서 매년 지내 ‘제청말(祭廳-)’이라 한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지촌말·지터곳으로도 불리며 옛날에는 웃말로 불리었다.

● 흙다리[土橋]

신산 3리에 있는 마을 및 다리. 옛날 이곳에 흙으로 만든 다리가 놓여 있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다. 흙다리 시장도 있었던 관계로 한자말로 토교장이라고도 한다.

○ 기와터

옛날 기와를 만들던 곳으로 추정되는 터.

○ 깻묵논

먹을 것이 없어 깻묵 한 덩어리와 7마지기의 논을 맞바꾸었다고 하여 생긴 논 이름. 지금은 없어졌다.

○ 능안평전

사리산 남쪽에 있는 들. 전성군, 왕계군 등의 묘가 있고 평평한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도락고개

흙다리에서 상수리쪽으로 가는 고개. 옛날 진터마을(한산리 무당재)에 부잣집이 있었다. 손님이 많이 드는 것을 귀찮게 여긴 부자가, 마침 방문한 중에게 손님이 안 오게 하는 방법을 물었다. 당시 입암리에는 갓모양의 돌을 마치 모자처럼 쓰고 있는 갓바위가 있었는데, 그 중은 이 모자를 벗겨 버리라고 하였다. 이에 주인은 하인을 시켜 갓모양의 돌을 이 고개에 갖다 버렸다 한다. 혹은 중이 도술을 부려 이 갓모양의 돌을 날려 버렸다 한다. 그래서 이 고개를 돌갓고개라 부르다가, 도락고개가 되었다 한다. 현재 구암리에 연자방아들이 있는데, 이것이 갓바위에 석워져 있던 바위라 한다.

○ 뒤뜰

신산리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들. 뒤에 있는 들판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뿔바위

옛날 어느 장수가 뛰어 다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막은쟁이

사리산 동쪽에 있는 골짜기. 막힌 우물이 있다 하여 막은쟁이라 하였는데 발음변화로 현재의 지명이 되었다.

○ 말무덤

사리산 동쪽 막은쟁이에 있는 무덤. 공신 이준의 말을 묻었다고 전해진 데서 붙은 이름이다. 원형으로 규모가 크다.

○ 버드골

옛날 버드나무가 많아서 이름 붙은 골짜기. 임진왜란 이후 경작을 하지 못하여 버드나무가 무성하였다는 이야기가 전해 온다.

○ 비랭이

남면국민학교 남쪽에 있는 개울. 용이 하늘로 올라간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일명 비룡천(飛龍川)이라고도 하며, 비랭이로 발음이 변하였다고 한다. 이곳에는 비가 오지 않아 냇물이 마르면 개울 건너에서 활을 쏘아 맞은편 바위를 맞추면 비가 왔다는 전설이 전해온다. 지금은 목장으로 변하였다.

○ 사리산(舍利山)

광수원 동쪽에 있는 산. 절이 많았고 도 통한 중이 있었다고 하며 절의 부도에서 사리가 나와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조선조 태조가 천도하려 할 때 광수원 동쪽 10리 이내에 있는 계족산(鷄足山)을 왕도로 건의하였는데, 그 산이 사리산일 것으로 추정된다.

○ 사리암

신산리 산1-1번지 절터골에 있었다는 암자. 절터에서 사리가 나온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기와조각과 백자조각들이 발견되어 옛부터 절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서늬굴고개

사리산에서 선유동으로 가는 고개.

○ 신천

남면국민학교 남쪽을 서에서 동으로 가로지르는 개울. 신암리에서 발원하여 붙은 이름이다. 일명 강화천·입암천이라고도 한다.

○ 연지

이준 사당 옆의 연못.

○ 절터골

사리암 근처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다 하여 생긴 지명이다.

○ 지터곳

안말 동쪽에 있는 골짜기.

○ 천년묵은 나무

신산 5리 광수원에 있는 나무. 천 년 가까이된 느티나무라 붙은 이름이다.

○ 칠송장

버드골에 있는 지명. 옛날 신산리 마을은 지금의 칠송장에 있었는데 이곳에서 돌림병이 나서 한꺼번에 7명이 죽어 마을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입으로 전해온다. 또는 소나무 일곱 그루가 나란히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토성

흙다리 뒤 능선으로부터 입암리 뒤 능선까지이다. 성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팔죽할머니 묘

남면 신산리 산1번지에 있는 묘. 약 100여 년 전에 사교무친의 고씨(高氏) 여인이 주막거리에서 팔죽장사를 했고, 모은 돈으로 토지를 장만하고 살다가 이 땅을 부락에다 기증한 후 죽었다. 여기서 유래되어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그 여인의 묘를 버드골로 이장했으며 부락에서 합동으로 제사를 지내고 있다.

○ 하마청

남문중학교 남쪽에 있는 도랑. 근처에 전성부원군 이준의 묘가 있어 이 도랑에서는 말에서 내려야 했기에 붙은 이름이다. 지금의 남면의원 뒷집 구옥을 하마청택(宅)이라 부른다.

2. 신암리(神巖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신암리 일부 지역이 신산리로 떨어져 나갔다. 지명유래는 두 가지이다. ① 조선시대에 신(神)을 모신 바위가 있어 생긴 이름이다. ② 이곳에 있는 남선굴을 신선바위라 하였는데, 여기서 연유하여 이 마을을 신선바윗골·신암골·신암골·신암동이라 불렀다.

● 부도골

신암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 이 곳 신암사라는 절에 고승의 사리를 담은 부도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절터만 남아 있다.

● 선유동(仙遊洞)·서늬골

웃신앙골 동쪽 서늬재 밑에 있는 마을. 옛날 선녀가 놀던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서늬골이라고도 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유래가 전해진다. ① 찬물이 많이 나서 벼가 잘 익을지 않아 쇠논골이라 하였는데 발음이 변하여 서늬골이 되었다는 것. ② 서쪽으로 길게 누워있는 골짜기라서 서늬골이었는데, 발음이 변하여 서늬골이 되었다는 것이다.

● 양짓말

웃신앙골 남쪽에 있는 마을. 양지 바른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웃신앙골

양짓말 북쪽 저수지 위에 있는 마을.

● 음짓말

구름재 남쪽 음지쪽에 있는 마을.

● 점말[店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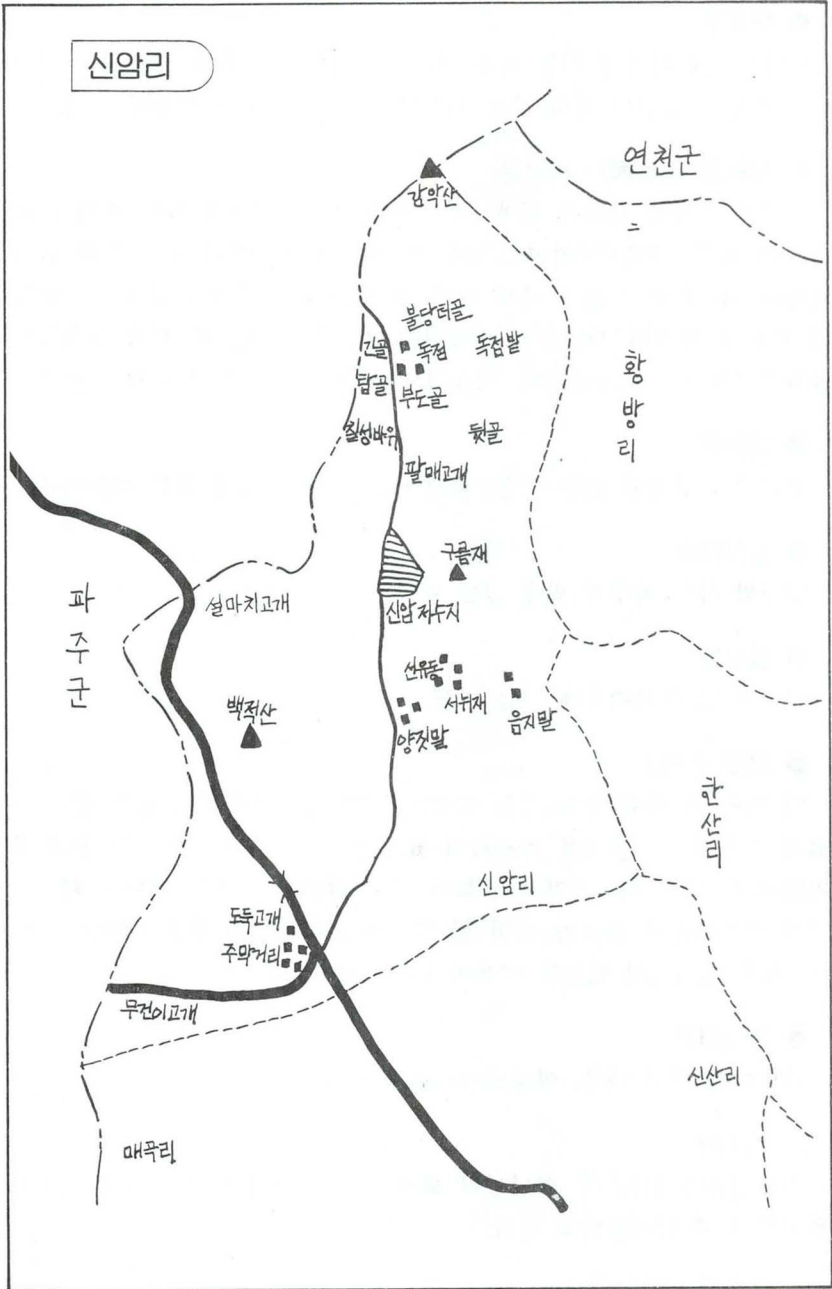
약 75년 전 수십 호의 마을 사람들이 가마를 설치하고, 옹기 굽는 작업과 옹기장사로 생계를 유지하여 왔던 마을. 그들 대부분은 천주교 신자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규모가 작고 자본도 부족한 데다가 화학용기가 발달되면서 판로가 막혀 현재는 가마터만 남아 있고 폐허가 되었다. 혹은 토기점이 있었던 마을이라고도 한다.

● 주막거리

주막이 있었던 마을. 아랫말이라고도 한다.

○ 가마터

신암 2리에 있는 터. 옛날부터 오지항아리·질그릇 등을 구운 곳으로 한국전쟁 때 없어졌다고 한다.



○ 감악산

파주군과 연천군에 걸쳐 있는 산. 멀리서 보면 감색을 띤다하여 붙여진 지명이라 한다.

이 산은 연천·적성·양주 등지의 토속신앙의 근원지이며, 신산(神山)이고, 경기도 오악의 하나가 되는 명산이다. 신라 때부터 조선초까지 이곳에서 1년에 1-2회 나라의 제사를 지냈으며, 지금도 주민들은 일 년에 한번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같이 신령스런 큰 산의 이름에는 ‘감’(罽·神) 또는 ‘감(神)악’ ‘감양’과 같은 것이 많이 들어 간다.⁴⁾ 그래서 감악산이라는 산 이름은 감색을 띠어서 붙여졌다기 보다는, 신령하고 큰 산이기에 붙여진 지명일 가능성이 크다.

○ 구름재

감악산 남쪽에 있는 높이 424m의 산.

○ 긴골

부도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긴 골짜기라서 붙은 이름이다.

○ 낭바위

서뉘골 서쪽 신암리와 적성면 설마리 경계지점에 있는 바위. 옛날 이곳 능선에 떨어졌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이 바위는 높이 10m, 길이 20m 정도이며 병풍을 둘러친 것과 같다 하여 병풍바위라고도 한다.

○ 도둑고개

점말 뒷산 작은 고개. 옛날 도둑들이 광수원이 내려다 보이는 이 고개에서 망을 보며 재물을 훔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독점

부도골 북쪽에 있는 터. 옛날 천주교 박해 때 천주교인들이 이곳으로 피해 와서 독을 구웠던 곳이라 유래된 명칭이다.

4) 유재영, 『전래지명의 연구』, 원광대학교출판국, 1982, 129쪽 ; 이병선, 『한국고대국명지명연구』, 아세아문화사, 1982, 144쪽.

○ 독점밭

부도골의 독점 근처에 있는 밭.

○ 뒷골

부도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부도골 뒤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무건이고개

점말에서 파주군 무건리로 가는 고개.

○ 백적산

신암리 중간에 솟아있는 산. 잣데미라고도 한다. 이곳에 봉화대가 있었다고 한다.

○ 불당터골

부도골 북쪽에 있는 골짜기. 불당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빗돌대왕 비

감악산 정상에 있는 비. 비스듬히 서 있어 ‘뺨뚨대왕비’라 불렀는데 발음이 변하여 빗돌대왕비가 되었다고 한다. 글자가 소멸되었다고 하여 몰자비라고도 하며 설인귀의 사적비라는 설도 있다.

○ 서늬재

서늬골 동쪽에 있는 동산.

○ 설마치고개(薛馬馳-)

신암리에서 적성군 마지리 중간에 있는 고개. 어룡고개라고도 한다. 신라의 삼국통일 당시 당(唐) 장수로 활약한 설인귀가 말을 타고 달리던 곳이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설인귀 굴

감악산 남쪽 매봉재에 있는 굴. 고구려를 치러 온 당나라 장수 설인귀가 이곳에 진을 치고 있었다고 전해져 붙은 이름이다. 마을 노인들은 임겨정굴이라고도 한다.

웃신앙골 남쪽에 있는 절. 이곳에는 100여 개의 절이 있었으나 신령이 나타나 절이 있을 터가 아니라고 하여 하나 씩 없었는데, 신령에게 빌어 수월사 하나만 남겼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신암저수지

17년전 신암리에 만들어진 저수지.

○ 아벌린산

감악산의 봉우리 가운데 아귀바위가 있는 산. 감악산에 사람 얼굴처럼 생긴 바위가 있는데 그 가운데 입을 벌린 것 같은 모양을 한 곳이 있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원터

백적산 아래에 있던 터. 신산리에 있는 광수원(廣水院)의 집터가 신암리에서 설마리로 가는 이 곳 길목에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잣골

구름재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자떼미라고도 한다.

○ 칠성바위

부도골 서쪽에 있는 바위. 아기바위라고도 한다. 옛날부터 아들을 낳게 해 달라고 치성을 드리던 곳이라 붙은 이름이다.

○ 탐골

부도골 서쪽에 있는 골짜기. 이곳에 탐이 있어 생긴 이름이다. 그러나 탐은 일제시대에 일본인들이 가져 가 지금은 없다고 한다.

○ 팔매고개

웃신앙골 북서쪽에 있는 고개.

○ 팔매바위

어느 장사가 팔매질하여 던졌다는 바위.

3. 매곡리(梅谷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양주군 석적면 회촌리의 일부 지역을 병합하였다. 매골·맹골·매곡이라고도 부른다. 지명유래는 여러가지가 전하고 있다. ① 높은 산 밑에 자리하여 붙여졌다. ② 동네가 “매화가 떨어지는 형세”[梅花落地形]이다. ③ 동네가 매의 형국을 하고 있다. ④ 큰 매화나무가 있었다. ⑤ 이 곳 출신인 수원 백씨 증시조인 백인걸을 맹자와 같은 성현으로 칭송하여 맹골이 되었다.

● 거름배

맹골 서쪽에 있는 마을.

● 맹골

매곡리에서 으뜸되는 마을. 큰말이라고도 한다.

● 북구리[北谷]

맹골 남쪽에 있는 마을. 사촌리 북쪽 골짜기에 있다 하여 생긴 것이라 한다. 북곡리가 북구리로 발음 변화하였다.

○ 관모봉

북구리 동쪽에 있는 봉우리. 관모와 비슷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당뒤

황새말 남서쪽에 있는 들.

○ 돌다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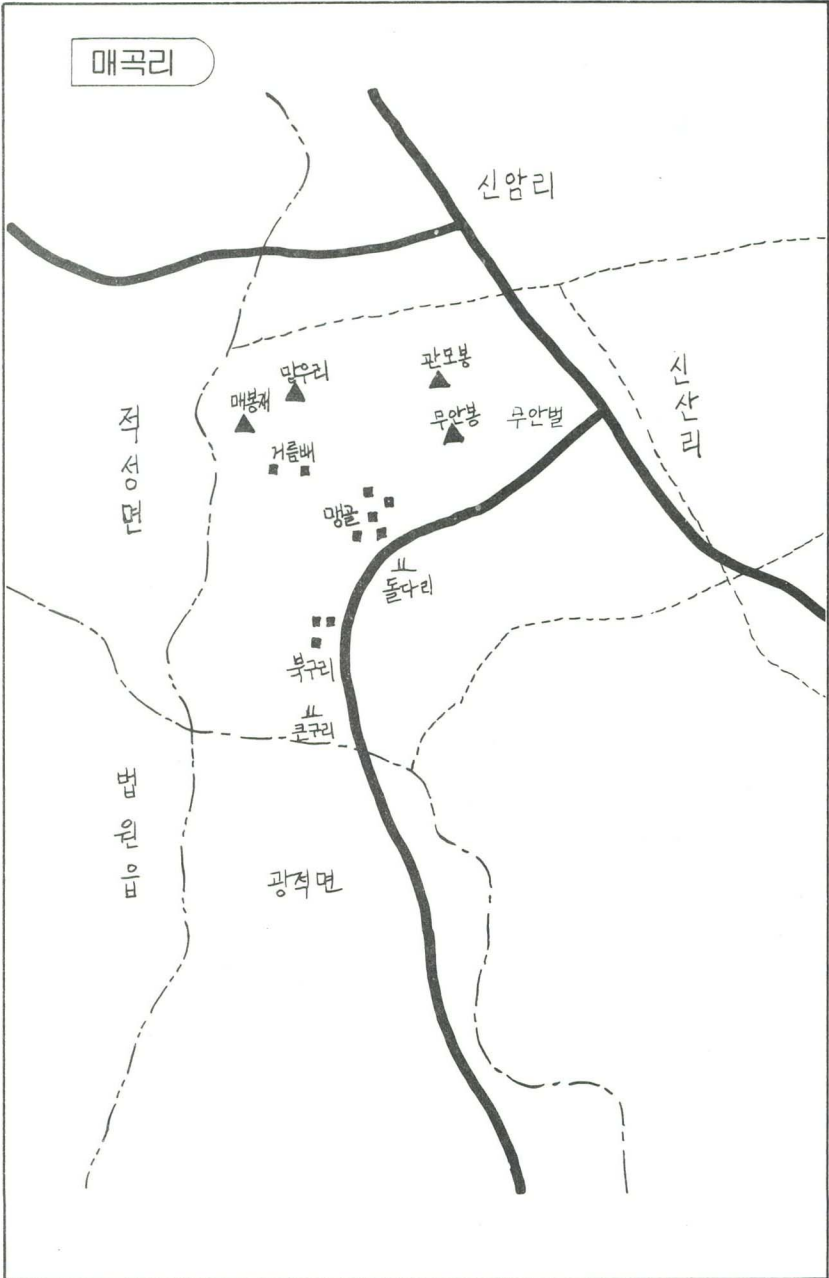
맹골 남쪽에 있는 들. 돌로 놓은 징검다리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망우리

북구리 북쪽에 있는 산.

○ 매봉재

맹골 북서쪽에 있는 산.



○ 무안벌

무안봉 동쪽에 있는 들.

○ 무안봉(舞雁峰)

북구리 동쪽에 있는 봉우리. 산의 모양이 기러기가 춤추는 형상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백호동

매봉재 북쪽에 있는 골짜기. 호랑이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앵골

신암리 왼쪽에 있는 골짜기. 왼쪽골이 앵골로 변하였다고 한다. 앵골이 송아지 울음소리 같고 송아지는 오양간에 있다 하여 오양골이라 하였으나, 발음이 변하여 앵골이 되었다고 한다. 작은 앵골과 큰 앵골이 있다.

○ 큰구리

북구리 남쪽에 있는 들.

○ 황새말

맹골 남서쪽에 있는 들. 옛날 황새가 많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4. 구암리(龜岩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남면 사촌리를 병합하였다. 이 부락에 거북과 같은 바위가 있어 거북바위 또는 구암이라 부른다.

● 굿배미

모래말 북동쪽에 있는 마을. 거북과 같은 바위 또는 능선이 있어 구바위[龜岩]라 칭하던 것이 바뀌어 부르게 된 것이다. 혹은 귀달린 뱀이 나왔다가, 마을 능선이 뱀과 같다 하여 구뱀이라 하였는데, 발음이 변하여 굿배미가 되었다고도 한다. 큰말이라고도 불린다.

● 모래말[沙村]

효촌저수지 북쪽에 있는 마을. 이 부락의 토질이 순사질토(純砂質土)이고 모래가 많아서 생긴 이름이다.

● 미태골

모래말의 가운데에 있는 마을. 무태동이라고도 한다.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산의 모양이 마치 삼태기같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마을 앞의 우물을 메워야 부자가 된다고 하여 우물을 사용하지 않는다.

● 서내울[仙遊洞]

굿배미 북쪽에 있는 마을.

● 웃말

모래말에 있는 마을. 모래말에서 가장 위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풍곡동(豊谷洞)이라고도 한다. 마을 근처의 바위에 ‘豊谷洞’이란 글씨가 새겨져 있다. 양주 윤씨의 선조가 살던 곳으로 마을 사람들이 풍족하게 살아왔기에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지오리(芝五里)

모래말 가운데 가장 아래의 마을. 옛날 이곳에 살던 다섯 가구가 지초와 같이 아름답게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거북바위

굿배미 동쪽 구암리 88번지에 있는 바위.

○ 거적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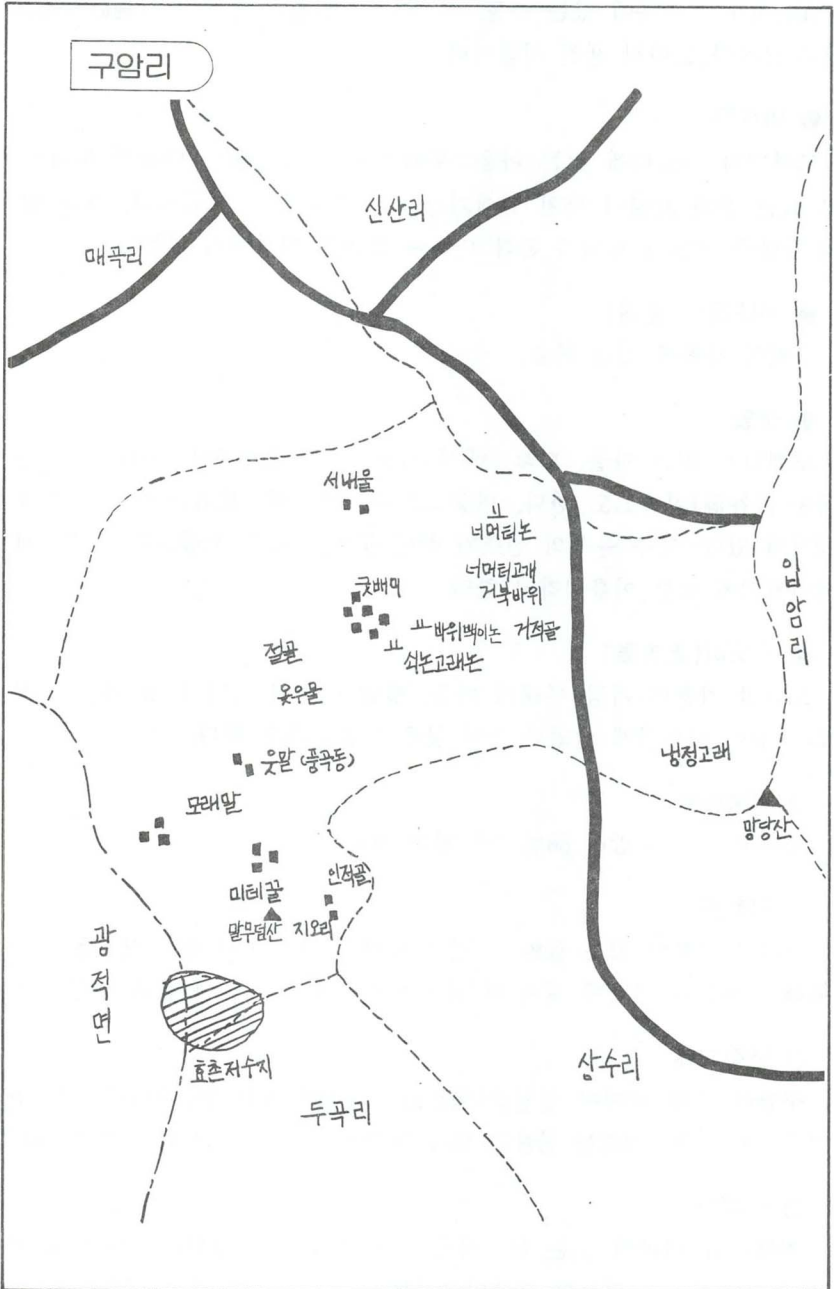
굿배미 동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 열병이 마을에 번지자 전염을 막기 위해 시체들을 거적에 싸서 이 골짜기에 버렸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냉정고래

구암리 동쪽 끝이며 망당산(望唐山) 서쪽에 있는 논. 이곳은 망당산 약수터에서 흘러내리는 찬물로 항상 냉기가 있고 습하여 붙은 이름이다.

○ 너머터

거북바위 너머에 있는 논.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굿배미로 한 집 두 집 이사를 왔는데 굿배미로 넘어 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너머터고개

굿배미 동쪽에서 너머터로 가는 고개.

○ 능골

떡골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옛날에 능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 말무덤산

미태골과 지오리 사이에 있는 산. 말무덤이 있어서 붙은 이름이다.

○ 멍골

장고개 동쪽에 있는 골짜기. 여우가 많이 나왔다고 하여 여우골이라고도 한다.

○ 바위백이는

굿배미 동쪽에 있는 논.

○ 뱀많은산

산의 모양이 뱀과 비슷하고 뱀이 많이 나와 붙은 이름.

○ 벽장골

구암리 산 26번지 1호에 있는 골짜기. 이곳에 있는 바위 밑에 굴이 있는데 모양이 마치 벽장처럼 생겼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쇠논고래

굿배미 동쪽에 있는 논.

○ 승저골

떡골 북동쪽에 있는 골짜기.

○ 양태울고개

모래밭에서 굿배미로 가는 고개. 버드나무가 많이 있었다.

○ 옷우물

절골에 있는 우물. 마을 사람들이 옷이 울랐을 때 이 곳 물로 씻으면 깨끗이 나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용바위

이곳에서 용이 살다가 승천하여 바위가 갈라졌다고 한다.

○ 인적골

지오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이 골짜기에 한 번 들어가면 제대로 찾아 나오는 사람이 드물어 붙은 이름이다.

○ 장고개

지오리 남동쪽에 있는 고개. 상수리 갯바위에 장이 설 때 넘어가던 고개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질골

굿배미 남서쪽에 있는 골짜기. 질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 제비바위

모래말에 있는 바위.

5. 두곡리(杜谷里)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시 대부분의 다른 리는 큰 변동이 있었으나, 두곡리만은 전혀 없었다. 부락의 사면이 산으로 막혀 있는 두메 골짜기라 하여 두일 또는 두곡리라 하였다.

● 느티정말

임계집너머말 북서쪽에 있는 마을. 느티나무 또는 느티나무정자가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 두일

효촌저수지 남쪽에 있는 마을. 두곡리에서 가장 으뜸되는 마을. 윗말과 아랫말이라 불리는 두 개의 자연부락이 있다.

● 숨물

두일 북쪽에 있는 마을.

● 이터

두일 북서쪽에 있는 마을.

● 임계집너머말

두곡리에 있는 마을. 임씨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 긴등

두일 북동쪽에서 남으로 뺀 야산. 지형이 청룡을 닮았다고 한다.

○ 냉정(冷井)

물이 매우 차서 붙은 우물 이름. 약샘이다.

○ 돌석이뿌리

두곡리 입구를 말한다. 이곳에 돌이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공장이 들어서 있다.

○ 들바위

느티정말 북서쪽에 있는 바위. 바위가 드문드문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저수지에 잠겨 있다 한다.

○ 들바위논

들바위에 있는 논. 지금은 저수지에 잠겨 있다.

○ 무시고개

숨물 북쪽 두곡리에서 구암리로 가는 고개. 숲이 우거져 ‘무섭다’고 하여 지어진 이름이다. 무수고개라고도 한다.

○ 물건너논

두일 북쪽 개울 건너에 있는 논.

○ 발산고개

이터 남서쪽 두곡리에서 광적면 덕도리로 가는 고개.

○ 상봉(上峯)

두일의 아랫말 서쪽에 있는 산. 산이 높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승지동 약수터[聖芝洞藥水-]



왕박골에 있는 약수터. 치풍·이질 등에 특효가 있다 한다.

○ 오구터

습물 북쪽에 있는 터. 오가터라고도 하는데 옛날 오씨가 터를 닦고 살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운물

무시고개 끝에 위치한 조그마한 우물.

○ 왕박골

왕바위골·왕암동(旺岩洞)이라고도 한다. 커다란 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장구재

두곡리에서 광적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 지리내미고개

바래미고개 남서쪽 광적면으로 넘어가는 고개.

○ 청룡골

두일 북동쪽에 있는 긴등의 남쪽 끝. 지형이 청룡을 닮은 긴등의 끝이라 하여 붙은 지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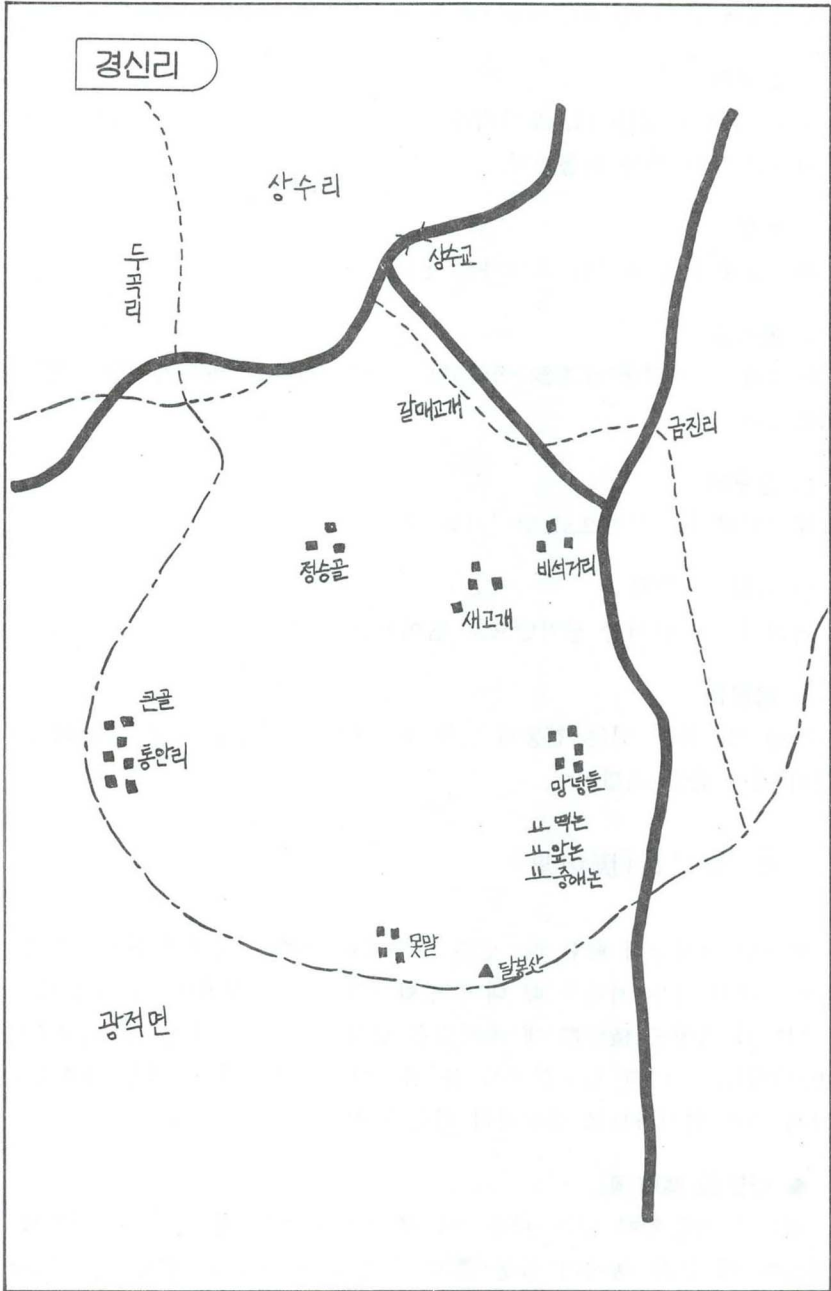
6. 경신리(庚申里)

1914년 행정구역 폐합 때, 남면 상수리와 양주군 석적면 이패하리 등 2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병합하였다. 경신골이라고도 부른다.

남면이 적성군(積城郡)에 속하였을 당시, 감악산은 적성군의 주산(主山)이었다. 그런데 감악산에서 볼 때, 이 마을이 정경신방(正庚申方: 남서방)에 위치하므로 경신리라 하였다 한다.

● 망녕들[豊野洞]

경신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 이 부락 앞에 비교적 큰 들이 있는데, 옛날에 이 들의 농사가 풍흉(豊凶)의 변화가 심하여 ‘망령된 들’이라



하여 생긴 명칭이다.

● 못말[池村]

망녕들 남서쪽에 있는 마을. 지금은 큰 저수지가 된 큰 연못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비석거리

경신리 북동쪽에 있는 마을. 이 부락 앞에 관찰사와 적성현감(積城縣監)의 선정비가 있어서 칭하게 된 이름이다. “觀察使 金公箕晚永世不忘碑. 道光二十九年十月立” “行縣監 玄候濟昇永世不忘碑. 光緒丙子四月立” “行縣監 吳候慶延永世不忘碑. 道光三十年五月立”이라는 비문이 새겨진 세 개의 비석이 나란히 있다.

● 새고개[間峴]

비석거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 및 고개. 고개가 마을 사이에 있어 사이고개라 불렀으나 새고개가 되었다. 이 고개에 있는 마을도 같은 이름이다.

● 아기낭굴

달봉산 남쪽에 있는 마을.

● 엄태물

통안리 서쪽에 있는 마을. 엄태물이라는 우물이 있었다 한다.

● 정승골

비석거리 서쪽에 있는 마을. 정승을 지낸 유만수의 묘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통안이

경신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 이 부락의 전후 좌우가 산으로 막혀 있어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으므로 여러 가지 재화(災禍)를 방지하고 편히 살 수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행정상 지칭은 통안리(通安里)이다.

○ 갈매고개[渴馬-]

비석거리에서 상수리 상다리로 가는 고개. 이 곳 산줄기가 남동쪽으

로 약 1km 쯤 길게 뻗어 그 끝(말굴이모퉁이)이 하천에 닿아 있다. 이곳의 지형을 말의 형국이라 하고, 말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는 형상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경신동언(庚申洞堰)

못말에 있던 저수지. 주위가 880척 이었다고 하나⁵⁾ 지금은 효촌저수지의 영향으로 독만 있고 양어장으로 변하였다.

○ 달봉산

못말 남쪽에 있는 산. 마치 독과 같이 오뚝한 봉우리의 모양을 하고 있다. 월봉산이라고도 하며 이곳에서 달이 떠오르곤 하여 붙은 이름이다. 그 상봉에는 약 300년 된 굴참나무가 있는데, 동네 사람들은 이 나무를 천신처럼 받들고 주민들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하는 산신제를 드린다. 산신제는 3년마다 음력 12월에 날을 잡아 올리는데 집행은 제관, 도가, 축관, 소임, 총무가 맡는다. 제사음식으로는 벼 3되 3흙을 절구에 찼어 조라술을 담고, 쌀을 찼어 빻은 떡과 마을에서 생산된 과일을 올리고, 자정이 지나서 주민일동의 가주 순서로 건강을 기원하며 소지를 올린다.

○ 떡논

망녕들 남동쪽에 있는 논.

○ 매미골

경신리를 둘러싼 북쪽의 골짜기. 물이 부족하여 조금만 가물어도 모를 내지 못하는 건답이다. 6,7월에 장마가 오고 매미가 울어야 모를 낼 수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매봉찌

달봉산 북서쪽에 있는 산. 매봉산이라고도 한다. 매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5) 『楊州牧邑誌』(韓國學文獻研究所, 『邑誌』京畿道 ①, 1985, 6쪽).

○ 앞논

망녕들 남동쪽에 있는 논.

○ 중애논

망녕들 남동쪽에 있는 논.

○ 큰골

통안리 동쪽에 있는 골짜기. 골짜기가 크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7. 상수리(湘水里)

1914년 행정 구역 개편시, 상수리의 일부 지역을 분리, 남면 경신리와 양주군 광적면 덕도리에 병합시키는 한편, 남면 상수리·발운리와 양주군 석적면 향동리 등 2개 리에서 일부 지역을 떼 내어 흡수하였다.

쌍수·산수·산수라고도 부르는데, 동쪽과 서쪽에서 흘러오는 두 물이 마을 앞에서 합하여 동쪽으로 흘러가기 때문이다. 혹은 고려말(高麗末) 이성계와 동관이었던 직장공(直長公) 홍지(洪智)가 태조(太祖) 때 죽으니 태조는 무학대사로 하여금 산지를 잡게 하였다. 그리하여 망당산(望唐山)에 명당을 잡았으나 묘지형국(墓地形局)이 왕자형(王字形)이라서 왕운(王運)을 피하고 부귀만을 누리도록 분금(分金)하였다. 그러나 화산(火山)이 미치게 되자 당시 동네 이름 청송리(靑松里)를 ‘水’자가 든 ‘상수’라 고쳐 부르게 되었다는 이야기도 있다. 그리고 도토리 나무가 많아 붙은 이름이라고도 한다.

● 갯바위장

상수 2리에 있는 마을. 바루니라고도 한다. 상수리에 있던 장터가 이 곳으로 옮겨 붙은 이름이다.

● 구석말

양짓말 북쪽에 있는 마을. 구석진 곳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금진리(禁陣里)

상수리 남쪽에 있는 마을. 하천이 범람하면 퇴로가 없다 하여 군사



진을 치지 말라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일설에는 인가도 없고 산림만 우거져서 여러 가지 동물은 물론 곰도 살았다고 하여 웅존(熊存)이라 하였는데, 한글화하여 곰주니가 되었다고 하며 금진(禁陣)은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금진리·검준리·건전(乾田)이라 부르기도 한다.

● 기와집말

상수 3리에 있는 마을. 기와집이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바깥통안이

통안리 바깥쪽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 상다리[湘橋]

상수국민학교 남쪽 1리에 있는 마을. 상수천에 다리가 놓여 있는 곳이라 붙여진 이름이다.

● 셋말[閭村]

술막거리와 통안리 사이에 있는 마을.

● 술막거리

셋말 북쪽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술막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안말

망당산 남쪽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 안통안이

통안리 안쪽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 양짓말

안말 남쪽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양지바른 곳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역말[驛村]

상수리 424번지이며 옛날 역참(驛站)이 있던 터. 지금은 주택지로 변하였다.

● 중간말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안말과 양짓말 사이에 있어 붙은 이름이다.

● 통안리(通安里)·통안이

상다리 북동쪽 상수 1리에 있는 마을. 고래로 외부의 재화(災禍)를 받지 않고 편히 살고 있어 지어진 이름이다.

○ 갯바위장터

상수 2리 갯바위에 있던 터. 원래 입암리 구갯바위에서 장이 열렸는데 한국전쟁 이후 상수리 갯바위로 장터가 옮겨졌다. 신갯바위장터라고도 하며 5일장이 섰었다.

○ 강당고개

역말 서쪽에 있는 고개. 박석고개라고도 한다.

○ 거지고개

상수 3리에 있는 고개. 옛날에 거지가 많이 살았다고 한다.

○ 구매배

굴바위 앞의 논. 굴바위가 있어 굴바위들이라 하였는데 발음변화로 구매배라고 한다.

○ 굴바위[孔岩] ; 혈암(穴岩)

망당산 서쪽에 있는 바위. 이곳에는 큰 바위들이 많고 그 밑에 굴이 뚫려 있어 붙은 이름이다.

○ 냉정

홍덕사 절 뒤의 돌 틈에서 나는 약수. 무학대사가 상수리에 도착하여 산소자리를 본 후 물이 나오므로 산 주봉을 넘어 이곳을 지팡이로 찌르니 그 틈에서 물이 쿵쿵 쏟아졌다고 하며 약수로 알려져 있다.

○ 노랑벌

상수 3리 북쪽 고양산 주위의 들.

○ 녹음터

망당산 정상에 있는 터. 옛날 할머니들이 정성을 드릴 때 밥을 짓던 곳이었다. 녹음을 짓는 곳이라 하여 녹음터골로 불리웠다. 마을 사람들은 치성드리는 밥을 ‘녹음밥’으로 부른다. 옛날에는 이곳이 발운리였다.

○ 동전벌

상수리 남서쪽 두곡리와 경신리 경계에 있는 들. 예전에는 동전 몇 톨을 주고도 살 수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망당산(望唐山)

상수리·입암리·구암리에 걸쳐 있는 높이 203.1m의 산. 망당산과 관련된 유래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원래 명당산(名堂山)이었는데 종종 때 임금의 묘지를 찾으러 이곳에 왔으나 남양 홍씨들이 명당산이 아니라 망할 ‘亡’자 망당산이라 하여 돌아갔다고 한다. ② 망당산은 중국 강소성에 있는 명산으로 한고조가 평민으로 있을 때에 은거하던 산이며, 진시황이 동남방에 천자기상이 있다고 그곳을 열려하던 고사와 연결되는 산이기도 하다. ③ 옛날에는 망탕산(芒湯山)이라 하였는데, 남양 홍씨 선(先)시조가 당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당나라를 잊지 못한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이곳의 약수가 유명하며 흥덕사라는 절도 있다.

○ 망데이약수터

망당산 북쪽에 있는 약수터.

○ 방골

상수리 서쪽에서 구암리 모래말로 가는 골짜기. 방통같이 아늑하여 붙은 이름으로 추측되며 지금은 방동(方洞)으로 부른다.

○ 빈장벌

갯바위장 남쪽에 있는 들.

○ 오미들

노랑벌 동쪽에 있는 들. 지대가 조금 낮고 물이 늘 피어 있으며 물풀이 있는 곳을 오미라 한다.

○ 용의 머리

상수리에서 구암리 모래밭로 가는 길목.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약 2km가량의 긴 능선 끝에 목이 갈록하면서 끝머리가 2m가량의 바위가 있다. 이곳에 작은 길이 나 있는데 길목을 낮추려고 바위를 파 내니, 피가 흘렀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조산모퉁이(造山-)

중간말 서쪽에 있는 골짜기. 고려말 무학대사가 홍지의 묘를 잡을 때 좌청룡 우백호 가운데 청룡이 약해 보이자, 인력으로 산을 모았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 한다.

○ 태봉

1869년(高宗 6) 조선 숙종의 태를 공주에서 이곳으로 옮겨 묻었다.

○ 한림암(翰林岩)

갯바위 남쪽 발운동 냇가에 있는 절벽. 경관이 아름다우며, 조선조 중종 때 한림 벼슬을 지낸 홍계정(洪係貞)이란 사람이 자주 소요(逍遙)함으로써 붙여진 이름이라고 전해진다.

8. 입암리(笠岩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입암리 일부 지역을 분리시켜 양주군 은현면 운암리에 포함시키고, 남면 마산리 전 지역을 병합하였다.

수백 년 전에는 뒷산의 큰 바위에 갯 모양의 돌이 썩어져 있었다. 그래서 갯바위 또는 입암이라 하였다.

● 계터

구갯바위 북쪽의 마을.

● 구(舊) 갯바위

망당산 동쪽에 있는 마을. 원래의 갯바위 마을이다. 약 300년 전 이 부락에 갯바위라는 장(場)이 섰었는데, 그 후 장이 상수리로 이전하였다. 그래서 옛날 갯바위장이 섰던 곳이라 하여 구 갯바위가 되었다.

● 너머말

구갓바위 남쪽 너머에 있는 마을.

● 말미·마산동(馬山洞)

구갓바위 서쪽에 있는 마을. 이 부락 뒷산의 형태가 말꼬리 같이 생겼다고 하여 지은 이름이다. 마을 논 한가운데 말묘라는 묘가 크게 자리잡고 있는데 그 ‘말묘’가 말미로 변하였다고도 한다.

● 옥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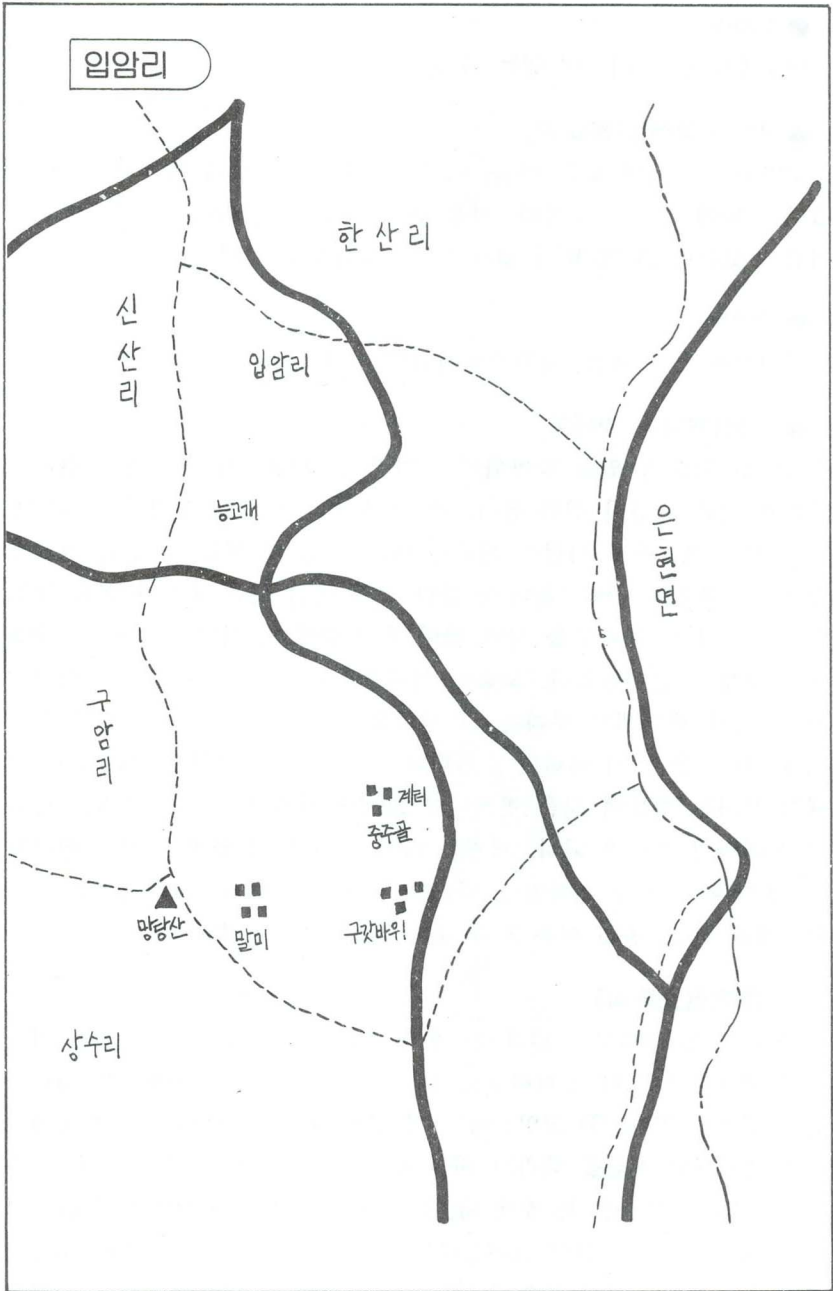
입암리에 있는 마을. 옥수동이라고도 한다.

● 입암(笠岩)·갓바위

망당산 기슭에 있는 갓바위에서 가장 큰 마을. 이 마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전설이 전해 온다. 이 산 북쪽 기슭에 인형과 같은 큰 바위가 있는데, 마치 사람이 의관을 바로 하고 서 있는 것 같은 형상이었다. 그 북쪽에 후에 ‘흔터’라 불린 곳에 욕심 많은 부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어느 날 시주를 하러 찾아 온 노승에게, 거지 등쌀에 못 살겠다고 꾸념을 늘어놓았다. 노승이 거지를 못 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자, 귀가 솔깃해진 부자는 그 방법을 물었다. 노승은 저 산에 있는 갓바위의 갓을 벗겨 버리면 소원대로 될 것이라고 말하고 사라졌다. 그래서 부자는 힘들여 갓을 벗겨다가 고개에 버렸다. 그 후 부자는 망하고 동네까지 폐허가 되니, 거지는 다시 찾아 들지 않게 되었고 헛터가 된 ‘흔터’에는 지금 기왓장만 텅굴고 있다. 그 때부터 고개이름을 갓바위고개라 하고, 동네 이름 또한 갓바위(笠岩)라 불리었다.

○ 고양산(高陽山)

말미 앞 논 한가운데 넓이 650여 평, 높이 10m 가량의 작은 산. 거울처럼 생겼다고 하며 동미라고도 불린다. 지명에 관한 유래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고양군에서 이 산을 잃고 찾아다니다가 이곳에서 산을 발견하고 세금을 내라고 하여 수년동안 세금을 냈다고 한다. 이후 이 산 때문에 농사를 못 짓게 되었음을 깨닫고 산을 고양으로 되들려 가라 하니 세금 걷는 일이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래서 고양군에서 온 산이라 하여 고양산이라 한다. ② 중국에서 만리장성을 쌓을



때, 흙과 돌이 모자랐다. 그래서 멀리 이곳 고양 땅의 산에서까지 흙과 돌을 나르게 되었는데, 도중에 만리장성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그 흙과 돌을 노랑벌에 쌓아 놓았는데 그것을 고양산이라 한다.

○ 기둥지

땅이 질다 하여 질둥지라 불렀으나 발음이 변하여 기둥지가 되었다.

○ 능고개

입암리 구갓바위 남쪽에서 신산리로 넘어가는 고개. 갓바위고개라고도 한다. 옛 능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달바위

계터 남쪽에 있는 바위. 명절 때면 달맞이 하러 오르는 바위라 하여 붙여졌다.

○ 마들

너머말 서쪽에 있는 들.

○ 마우들

입암 1리에 있는 들. 소시장이 섰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새능

능고개 남쪽에 있다. 작은 능과 같이 생겨 붙은 이름이다.

○ 왼골

입암리 왼쪽에 있는 골짜기.

○ 장밭

너머말 서쪽에 있는 밭. 장승 또는 장터가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절골

구갓바위 남쪽에 있는 골짜기. 절에 오르던 골짜기라서 붙은 이름이다.

○ 중주골

계터 남쪽에 있는 골짜기.

○ 채터

절골 북쪽에 있는 집터. 옛날에 채서방이 살았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밭으로 변하였다.

○ 큰다리

너머말 동쪽에 있었던 다리. 큰 돌로 된 징검다리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지금은 없어졌다.

○ 터골

너머말 남쪽에 있는 골짜기. 옛 집터이며 현재도 기왓장이 나온다고 한다. 지금은 채석장으로 변하였다.

9. 한산리(閑山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시, 한산리 일부 지역을 양주군 은현면 봉암리에 흡수시키고, 남면 임간리 전 지역과 양주군 묵은면 사패리 일부 지역을 병합하였다.

앞산이 한새(황새)처럼 생겨 한새미·한사미·한산이라 불렀으며, 이 고장에 한산거사(閑山居士)가 살았으므로 지어진 이름이라고도 한다. 옛날에는 한산리 대부분의 지역을 은홍정(銀杏亭)로 불렀으며, 500년 이상 묵은 은행나무가 지금도 서 너 그루 있다.

● 가마소[釜沼]

한산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 가마솥 자국이 있거나 가마 같은 못이 있었다고도 한다.

● 기와터

큰안터 서쪽에 있는 마을. 기와를 만들었던 곳이라 한다.

● 막은골

기와터 남쪽에 있는 마을. 마근골로도 불린다. 옛부터 전의(全義) 이씨(李氏)가 살았는데 조상 중 두곡(杜谷)이라는 별호(別號)를 가진 이가 있어 두곡이라고도 한다.

● 안터[內垜]

한산리 중심부에 있는 마을. 주위 부락들에 둘러싸여 안쪽에 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용바위[龍岩]

가마소 동쪽에 있는 마을 및 바위. 용처럼 생긴 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수백 년 묵은 은행나무도 있다. 근처에는 전의이씨(全義李氏) · 성주이씨(星州李氏) · 진천송씨(鎭川宋氏) 등 명신들의 묘가 많이 있다. 일본사람들이 뚫은 용굴도 있다.

● 임간리(林間里)

한산리 남동쪽에 있는 마을. 약 500년 전 이곳은 삼림이 무성하였는데, 그 사이에 인가가 두 어 채만이 있어서 생긴 이름이다. 사방이 숲으로 싸여 있어 피난고지라 불렀다고도 한다. 1912년 조선총독부에서 발간한 『구한국지방행정구역명칭일람』에는 ‘林澗’으로 되어 있다.

● 작은안터

안터의 작은 마을.

● 큰안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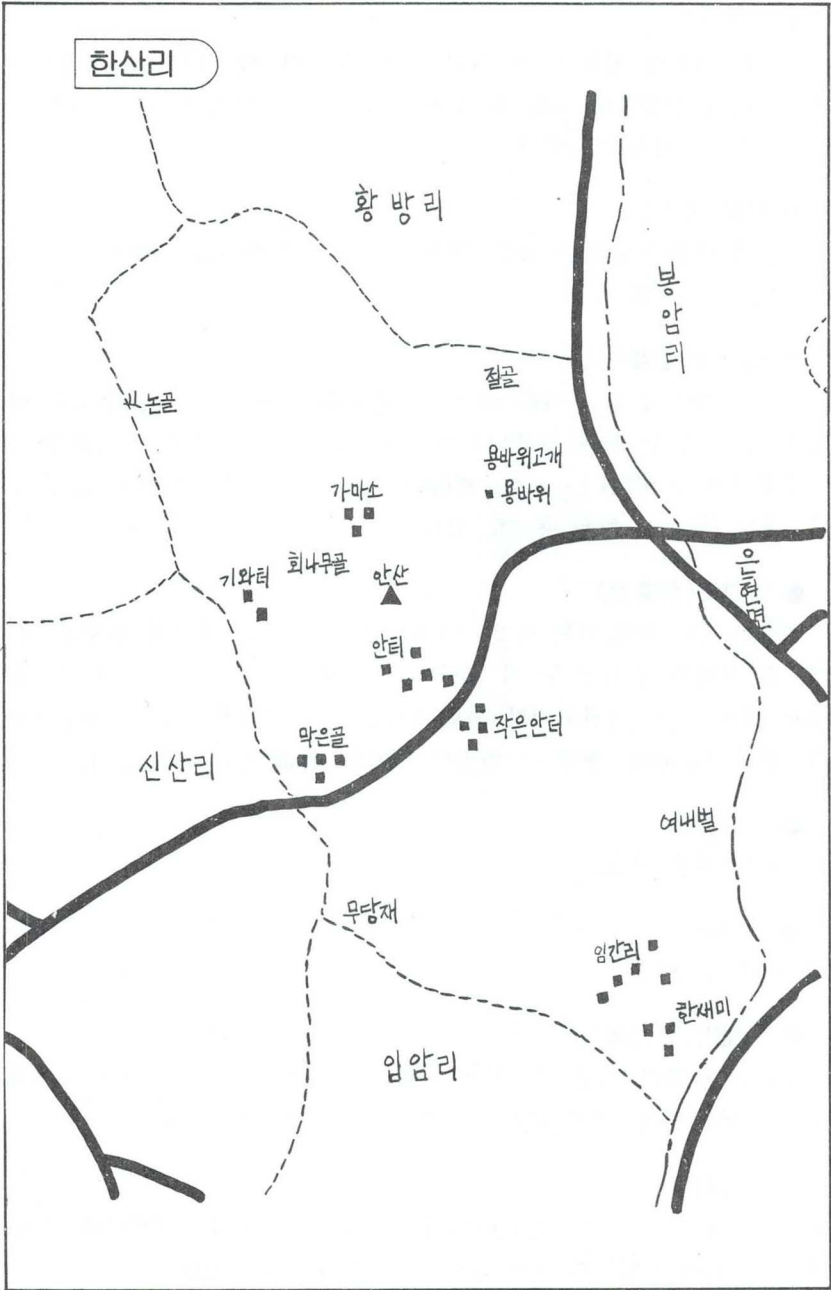
안터의 큰 마을.

● 한새미[閑蛇尾]

임간리 남쪽의 마을. 이 부락의 형태가 도사리고 있는 뱀의 꼬리와 같다 하여 한가한 뱀의 꼬리라는 뜻으로 지어진 이름이다.

○ 고심리고개

막은골에 있는 고개. 한산리에서 신산리로 넘어가는 고개이다. 고개가 높고 길어서 넘는데 힘이 들어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논골[畚谷]

가마소 북서쪽에 있는 골짜기. 한산리에는 논이 없었는데 이곳에만 논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라고 한다.

○ 뽕바위

한산 1리에 있는 바위. 옛날 어느 장수가 뛰어다녔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무당재

한산1리와 2리 경계에 있는 낮은 능선. 옛날 이곳에 유명한 무당이 살았고 성황당도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교통이 발달하기 전에 서울에서 양주를 거쳐 마전·삭령지방으로 다니던 길목이다.

○ 북동산

임간리 사람들이 치성드리는 나무가 있는 산. 이 나무를 부국나무라 하는데 이 나무가 있는 산을 부국동산이라 하며 지금은 북동산으로 부르고 있다.

○ 안산

가마소 남쪽에 있는 자그마한 산.

○ 여내별(汝内-)

작은안터 동쪽에 있는 들. 연애별이라고도 한다. 남편과 아내가 같이 밭일을 할 때 다른 남자가 와서 아내와 연애를 해도 모를 정도로 밭이 길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용바위고개

가마소에서 용바위로 넘어가는 고개. 용바위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장성이별

무당재고개 앞 들. 이 길가에 장승이 있었기 때문에 붙은 이름이다.

○ 절골[寺谷]

용바위고개 근처에 있는 골짜기. 절이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태악산

작은안터에 있는 산. 태를 묻은 곳이라 하여 붙은 이름이다.

○ 화초고개[花草-]

큰안터에서 기와터로 가는 고개. 꽃과 풀이 많아 붙은 이름이다.

○ 회나무골

가마소에서 기와터로 가는 고개. 회나무가 있었다 하여 붙은 이름이다.

10. 황방리(篋芳里)

1914년 행정구역 개편 때, 대부분의 리들은 큰 변화가 있었으나, 황방리만은 변동이 없었다. 감악산 밑이 되며 옛날에는 대나무가 무성하였고, 그 모습이 꽃과 같다 하여 황방·황팽이·황방동이라 하였다.

● 구렁말

황방리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마을. 큰말이라고도 하며 구석진 곳에 있다. 큰 도랑(溝)이 있어 구릉(溝陵)말이라 하였는데 발음변화로 구렁말이 되었다.

● 능골

남면 느티나무가 있는 마을. 감악산 능선 골짜기에 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왕의 묘터로 잡혔으나 취소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 원댕이·원당리(元堂里)

황방리 남서쪽에 있는 마을. 황방리 중간 능선에 온천이 있었으며 그 위에 산제사를 지내는 제당이 있어 온당(溫堂)이라 불렀는데, 발음이 변하여 원당리가 되었다 한다.

● 은개포

한국전쟁 전에 있었던 마을. 지금은 없어졌다.

● 중간말

능골과 구렁말 사이에 있는 마을.

● 폭포동

구령말 북쪽에 있는 마을. 폭포가 있어 붙은 이름이다.

○ 간파고개(干坡一)

구령말에서 전곡면 간파리로 가는 고개. 간파령(干坡嶺)이라고도 하는데 감악산 동록(東麓)이고 북쪽에는 간파동(干坡洞)이 있다.

○ 구룡소

용 9마리가 있었던 연못.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이곳을 묻어버려 지금은 없다.

○ 구름재

원당리에서 감악산으로 가는 첫번째 고개.

○ 남선굴(南仙窟)

부도골 북쪽 감악산에 있는 굴. 고려말의 충신 남을진(南乙珍)이 은거한 곳이었다. 바위 절벽에 움푹 패인 동굴이 있는데, 지금은 복을 비는 사람들의 기도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그 위에 ‘南仙窟’이라는 글자가 뚜렷하게 남아 있다. 원래는 설인귀굴로 불렸다고 한다.

○ 노루발바위

중간말 서쪽에 있는 바위. 바위에 노루발자국이 2개 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 능골고개

능골에서 능안말로 가는 고개.

○ 매골

매봉산 북쪽 밑에 있는 골짜기. 감악산에서 가장 긴 골짜기이며 기암 절벽과 각종 수목이 우거져 있다. 골짜기에 있는 바위가 매와 같이 생겼다 하여 생긴 이름이다.

○ 매봉산

남선굴 남쪽에 있는 산. 매처럼 생겨 붙여진 이름이다.



○ 방굴(方窟)

구렁말 앞에 있는 큰 굴. 굴을 건드리면 방씨문중(方氏門中)에 불상사가 생긴다는 전설이 있고 지금은 없어졌다고 한다.

○ 비룡천(飛龍川)

원당리 남서쪽에 있는 천. 용이 올랐다는 전설이 있다.

○ 선일재

원당리에서 감악산 방향으로 구름재 다음의 고개.

○ 쇠굴

봉암저수지 북쪽에 있는 산. 옛날 이곳에서 쇠가 나왔다고 하며 현재는 구덩이만 있다고 한다.

○ 선패랭이굴

봉암저수지 남동쪽에 있는 굴. 그 곳에 패랭이가 50(원)개 있었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 동치굴 또는 동치굴이라고도 하는데, 옛날 동을 파내던 곳이라고 하며 옛날 광부들이 그 굴에 들어갔다가 굳기 무너져 모두 죽었다고 전해진다.

○ 어형재

원당리에서 감악산 방향으로 선일재 다음의 고개.

○ 온천(溫泉)

원당이 북쪽에 있다. 옛날에 온천이 있었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 요당굴

중간말 남쪽에 있는 산. 옛날 이곳에 돌로 쌓은 돌각산이 있었는데 홍수가 나서 떠내려 갔다고 한다. 이 돌각산에 여우가 많이 있었다고 하여 여우당굴이라 불리다가 여유당굴 또는 요당굴로 발음변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 평풍바위

감악산 남선굴 위쪽에 있는 바위. 깎아지른 산등성이에 바위가 병풍처럼 펼쳐져 있어 붙은 이름이다.

○ 하늘재

원당리에서 볼 때 구름재 반대 방향에 있는 고개.

○ 호랑바위

황방 1리에 있는 바위. 옛날 호랑이가 바위에 와서 자주 앉았다고 하여 붙은 이름이다.